

「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TF」의 합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27.(화) 이데일리(인터넷), “누가 굴릴것인가 민간주도 윤곽... 어떻게 운용하나 과제 남아” 등

-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금융회사 등 민간회사만 진입시키기로 뜻을 모으면서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퇴직연금을 굴리는 방식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민간 중심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우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금융회사가 기금을 설립하는 ‘영리형’ 허용 여부에 대해선 그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개별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여러 기금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, TF는 은행·증권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‘민간금융 개방형 기금’을 진입시키기로 뜻을 모았다.

2. 설명 내용

- 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」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
- 합의와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등은 자제해 주시길 바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호 (044-202-7554)
		담 당	서기관	남덕현 (044-202-7657)